

거창군의회건의문

- 태풍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문 -

지난해 태풍 『루사』로 엄청난 재해를 입어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태풍 『매미』가 우리 거창군에 또 한번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.

태풍 『매미』의 강력한 풍속과 집중호우에다 산사태까지 겹친 천재는 피할 수 없었던 재난인 것입니다.

그러나 피해 우심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, 태풍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.

또한,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해 태풍 『루사』의 수해복구공사가 한창이던 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였는가 하면 계속되는 우기와 기상청의 태풍예보가 있었음에도 하천내 전석과 장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허술한 사업장 관리가 하천 범람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,

현장감 없는 설계, 같은 공구내 공사 분리발주, 도관리 사업장에 대해 군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감독부재 등이 부실시공을 초래하였고, 그런 사업장들은 이번 태풍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.

그리고 지방 1·2급 하천의 관리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,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저수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으나 행정권한이 미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도 치수·재난방지 행정의 허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사항들은 지방화, 분권화 추세에 맞지 아니하며, 또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
재해대책본부장인 최일선 자치단체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.

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완벽한 태풍피해 복구로 재발을 막고 향후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.

2003. 10. 24.

거창군의회 의원 일동

축 구 사 항

1. 저수지 관리권 인수 또는 용수조절권 행사

-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업목적은 이유로 우수기에도 저수율을 크게 낮추지 않고 있음
- 재해대책 본부장인 군수가 재해예방 및 피해최소화 차원에서 저수지 저수율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미행사

⇒ ● 영농대비 최소한의 저수량만 보유하면 집중호우시 어느 정도 홍수 조절기능을 할 수 있음

- 농업기반공사에서 맡고 있는 저수지 관리권의 인수 조치
 -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
- 재해대책 본부장으로서 용수조절권 행사
 -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의거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방재책임자는 이에 응해야 함

2. 실질적인 하천 관리권 행사

- 하천법 제28조에 의한 제1·2급 하천의 관리청인 경남도가 맡고 있는 “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·관리” 권한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상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.
- 공사, 예산 등 실질적 집행권한은 경남도가 직접 관장하고 일부 사무 및 소규모 공사 등만 시·군이 담당하는 등 관리 체계가 이원화

- 현장감 없는 설계, 지역 실정이 무시된 시공, 공사감독 부재, 道관리 사업장에 대한 郡 미관여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그 민원에 대한 양 관청간 책임전가

- ⇒
- 도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등 정책적인 업무만 처리
 - 군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집행
 - 기초자치단체장이 주어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 필요

3. 수해복구공사 발주

- 태풍 「루사」 수해복구공사는 같은 공구내 용수로, 교량, 하천공사를 각각 분리 발주
 - 사업별 시공순위 없는 시공으로 다음 공정 진행에 지장
 - 각각의 공사감독으로 합리적 시공의 조정역할 미흡
 - 영농 차질, 공사 지연 및 부실, 태풍 「매미」 시 피해 가중
- 소형 건설업체에서 과도한 공사 수주 및 사업장 분산으로 공사 진척 부진

- ⇒
- 같은 공구내 모든 공사는 동일업체가 시공
 - 주 공사 시공업체와 종 공사를 계약
 - 하자보수 책임한계가 명백
 - 효율적인 공사진행이 가능

-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미수립과 공사설계의 지연, 시공업체의 발주 지연 등으로 재해를 자초하였음

⇒ • 재발방지를 위한 조속한 피해복구 촉구
-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조기발주가 시급

4. 저수지 안전도 검사

- 웅양저수지 상류 산사태시 다량의 토석이 일시에 저수지내 유입되면서 저수지내 물에 의한 충격
- 저수지 만수위보다 1.5m 정도 수위 상승

⇒ • 웅양저수지 제당 안전도 검사 실시
- 재해 예방차원에서 필요(1987년도 준공)
- 타시·군 안전도 검사 실시(의령 싹실저수지 등 5개소)

5. 하천 제방

- 하천이 급커브지역은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므로 일반 하천제방과 동일하게 전석쌓기로 시공함으로 인해 제방이 붕괴

⇒ • 하천 제방 중 굴곡이 심한 곳은 콘크리트 보강 후 전석쌓기로 시공

6. 교 량

- 하천내 기존의 교량 중 높이가 낮고 교각의 폭이 좁은 시설이 다수 있음

- 나무나 토석이 교각에 걸려 우수 흐름에 방해가 하게 되면 주변지역으로 하천이 범람

⇒ • 교량 재가설시 교량을 높게 하고 교각폭을 넓게 시공
- 주상면 희동교 등

7. 웅양저수지 상류 약수암 진입교량

- 지대가 낮은 곳에 교량을 낮게 가설되어 있어 나무나 토석이 교각에 걸려 우수 흐름에 방해

⇒ • 교량 재가설
- 지방도와 맞은편 언덕 간에 연결할수 있는 교량 재가설이 필요
- 교각폭도 넓게 시공

8. 동산 배수로

- 태풍 「루사」 시 붕괴되어 2003년 3월 복구하였으나 재붕괴
- 하상의 모래가 물길 흐름에 장애를 주고 있어 현상태로 재복구 한다 해도 붕괴의 소지가 많음.

⇒ • 재붕괴 원인규명 및 하상정리 조속 시행

9. 산 립

- 낙엽송은 급경사지, 마사토에 부적합

⇒ • 향후 조림시 주근이 깊게 들어가는 수종 식재

